HD현대, 무인수상함 기술역량 입증… 글로벌 항해 속도낸다

600t급 ASV 진수… 안두릴 협력
시제품 통해 건조시간 대폭 단축
해상 실증 거쳐 사업화 본격 추진



HD현대-안두릴 ASV 진수식 단체 사진. /HD현대

HD현대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투자·개발한 600t급 무인수상함을 약 1년 만에 건조하며 글로벌 무인함정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업 주도로 시제품을 선제 제작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한·미 해상 실증을 거쳐 국내외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HD현대는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경하중량 600t급 중형 무인수상함(ASV) 진수식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협약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실물 건조를 마친 것이다.

이번 함정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체계업체 중심의 단계적 개발 방식과 달리, 양사가 자체 투자로 시제품을 선제 제작해 성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상무는 "업체가 먼저 시제품을 제작해 시장에 제시하는 안두릴의 사업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3년 걸리는 함정 설계·조달·건조·시운전을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수정했다. 형상과 제원 확정 후 자재를 발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추진 체계 등 핵심 장비의 수급 기간을 먼저 검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맞춰 설계를 조정했다.

장준호 HD현대중공업 수석은 "기존과 다른 설계·조달 방식에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HD현대가 축적한 선박 설계·건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기에 장비를 확보해 공동 건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인수상함의 두뇌는 HD한국조선해양의 함정 자율화 통합 솔루션 '브이에이원(VAone)'과 안두릴의 임무 자율화 플랫폼 '래티스(Lattice)'가 맡았다.

브이에이원은 상선 500척 이상에 적용된 아비커스의 자율항해 솔루션 '하이나스(HiNAS)'에 기관 자율화·손상통제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목적지 이동뿐 아니라 운항 전 기관 상태·연료량 점검과 운항 중 위험 감지·대응까지 자동화했다. 김형택 HD한국조선해양 함정기술연구소장(상무)은 "항해뿐 아니라 승조원의 기관 운용 업무까지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안두릴의 래티스는 임무 수행과 무장 운용을 지원한다. 함정은 임무와 고객국 요구에 따라 무장·센서를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다. 적 함정 탐지·정보 전달과 발사 명령 이후 무장 운용은 자동화하되 미사일 발사 여부는 운용자가 결정한다.

양사는 한미 해역에서 순차적으로 성능을 검증한다. 김형택 상무는 "울산 해역에서 약 3개월간 시운전한 뒤 미국으로 이동해 임무 자율화 기능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험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HD현대는 국내 무인함정 시장 진출도 타진한다. 최태복 상무는 향후 한국 해군의 중대형 무인수상함 수요를 전망했다. 현재 해군과 플랫폼 기술·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시험사업 등 협력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브이에이원을 자체 설계·건조하는 국내외 유인함정에도 순차 적용해 승조원의 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진수는 함정 건조 역량과 무인 운항 기술력을 결합한 성과"라며 "기술 고도화로 무인수상함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중진공·한유원, 새 수장 맞이… 혁신 비전 공유

중진공 박재호·한유원 최원영 취임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등 포부 밝혀


박재호 중진공 이사장


최원영 한유원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수장이 나란히 채워졌다. 중진공은 한유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5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박재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진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과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강화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3대 방침'으로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그만큼 중진공에 거는 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기업의 곁을 지키고 도약의 순간에는 한 발 앞서 길을 여는 중진공을 만들기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9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박 이사장은 부산외대 불어과를 졸업했다. 서석재 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등을 거쳤다. 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와 이사장을 지낸 후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한유원 제14대 대표이사에는 최원영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취임했다.

최 대표는 취임사에서 한유원을 대체불가 '국가대표 마케팅 정책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관 정체성 재정립 ▲지속 가능 경영체계 마련 ▲마케팅 기능 변화를 통한 정책 기능 역할 강화 ▲일 잘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의 성장을 '4대 미래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한유원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마케팅 정책 전문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업의 성장과 성과를 중심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장단계, 제품 특성별 '맞춤형 지원'과 공공구매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유원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1년생인 최 신임 대표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전신인 중기청에서 기술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등을 거쳤다.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참사관 경력도 있다. 이후 중기부에서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벤처혁신정책과장, 부산지방중기청장, 글로벌성장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수출, 금융, 판로, 소상공인 등 분야를 두루 거쳤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13일 청주가경터미널시장에서 열린 홈앤쇼핑 주최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에 앞서 (왼쪽부터)중기중앙회 황영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은지 공제마케팅실장, 가경터미널시장 임헌섭 상인회장, 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김진상 부회장, 이연희 국회의원, 청주시청 염창동 재정경제국장, 홈앤쇼핑 이현승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중기중앙회 임춘호 충북지역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홈앤쇼핑, 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로 확대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 성료

홈앤쇼핑이 전통시장의 먹거리 등 판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홈앤쇼핑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청주가경터미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홈앤쇼핑이 추진하는 '시장가자-GO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다.

홈앤쇼핑은 세미나를 통해 가경터미널시장이 가진 먹거리와 상품 경쟁력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홈앤쇼핑이 보유한 유통·방송 역량을 활용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알리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신영수 "국내외 물류사업 수익구조 개선"

〈CJ대한통운 대표〉

CJ대한통운 창립 96주년

신 대표, 실질적 성장 창출 강조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창립 96주년을 맞아 국내외 물류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신영수 대표와 주요 경영진,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신 대표는 기념사에서 "그동안 미래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투자와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외형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 전반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오네(O-NE)의 독보적인 시장 리더십을 중심으로 배송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풀필먼트와 수송 등 주요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E2E(End-to-End)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올해 미국 엘우드 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해 해외 물류망을 넓혔다.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를 물류현장에 투입하는 등 자동화 기술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창립 96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중기중앙회, 19일 '2026 백두포럼' 개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논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9일 일본 도쿄 힐튼 오다이바 호텔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 백두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포럼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과 백두포럼 16년의 성과'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과 포럼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선 오랜 기간 해외시장을 개척해 온 수출선도기업부터 최근 해외진출에 나선 기업, 해외진출 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글로벌화 성공사례와 해외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 콘크리트 업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및 중기중앙회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두포럼의 지난 16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포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갈지 함께 고민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